

# 본연의 임무인 방재활동에 더욱 정진할 터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992년을 되돌아 보면 우리에게 많은 시련도 있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였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외국과의 각종 통상 마찰과 소위 '거품경제'에서 안정 경제로 가는 과정에서의 혼란, 금융 시장 개방에 대비한 금융 업계의 자구책 강구 등 어수선한 국면도 있었으나 우리 민족의 저력은 이같은 어려움을 무난히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가는 거보를 내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래 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러시아와 중국과의 활발한 외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과 마지막 금메달을 차지함으로써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제도약의 기틀을 다져 자신감을 회복한 해였습니다.

저희 한국화재보험협회도 1973년에 설립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변화를 겪은 바 있습니다. 우선 1992년 10월 1일부터 풀(Pool) 제도로 운영해 오던 특수건물 화재 보험 업무를 사원 회사에 이관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보다 더 도모하고, 당 협회도 순수한 방재 전담 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좀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보법의 개정으로 기존 7대 도시 외에 울산·부천·수원·성남이 추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안전 점검, 홍보, 위험 조사 등 방재 서비스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당 협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저희 협회는 불모 지대나 다름이 없었던 방재·소방 분야에서 갖가지 기술을



습득, 연구, 개발하고 선진 외국의 최신 방재 기술과 정보를 국내에 소개 보급하는 한편, 특수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전국의 공업단지에 소재하는 대형 산업 시설에 대한 화재 정밀 점검,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 각종 위험에 대처하는 위험 관리 기법의 보급, 방재시험연구소의 운영 등을 통해 협회 창립 당시 32% 수준이던 방재 시설의 양호율을 89%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방재시험연구소 역시 시설과 인력의 꾸준한 투자로 시험 연구 업무에 정진한 결과 내무부, 건설부, 해운항만청, 수산청, 노동부 등으로부터 각종 시험 업무의 대행 기관으로 지정 받는 등 시험 업무의 공신력을 높여 왔고, 외국 유명 시험 연구 기관과의 기술 협정 등 활발한 기술 교류로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에 자만하지 않고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대형 건물과 기간 산업 시설에 대한 위험관리의 강화, 점검 결과의 전산화, 점검 내용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방재 기술 정보 회원 제도의 확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세미나 등을 통해 방재 기술의 보급 등 방재시험연구소를 활성화시켜 선진 종합 방재 기술을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협회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을 주신 특수건물 소유주 및 관계자 여러분, 사원사 및 관련 기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국민을 위한 종합 방재 기관으로서 국민 여러분을 위해 저희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 그리고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

1993년 새아침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김형진